

의 효율적인 배분을 도모할 수 있으며, 미래의 합리적 재정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

또 결산 심의를 통하여 수입 및 지출 예산 금액은 타당했는지, 예산 대비 수입의 과·부족 원인은 무엇인지, 명분이 없는 지출로 낭비된 사항은 없는지, 예산의 이용과 전용이 합당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 졌는지 등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차년도 예산 편성의 기초가 된다. 교회도 회계감사를 두는 것이 좋다. 회계감사는 독립된 제3자를 공동의회에서 임명하며, 회계전문가가 감사의 직임을 맡아야 한다. 이러한 전문 감사자를 통해 교회는 부정을 사전에 방지하고 투명성을 재고하며, 집행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다.

교회도 내부통제제도가 필요하다.

교회회계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내부통제제도이다. 현금은 부정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서 관리해야 한다. 교회에서 부정이 발생하면 금전적 손해뿐 아니라 사람까지 잃게 된다. 따라서 재정관리는 성숙한 사람이 맡아야 하며, 효율적인 내부통제조직을 구축하여 부정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내부통제조직의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

- ① 모든 현금에 대한 취급은 2인 이상 입회 하에 진행한다.
- ② 현금을 관리하는 출납업무와 장부를 기록하는 회계업무 담당자를 구분한다.
 - 출납기능: 현금에 대한 물리적 통제 (수납, 예입, 인출)
 - 회계기능: 현금에 관한 기장 및 전표관리
- ③ 모든 입금과 출금은 은행을 통하여 출납한다. 즉 수입은 당일 은행에 입금하며, 출금은 인터넷 또는 당좌수표를 통해 지급한다. 소액 사용은 소액현금제도를 운영한다.
- ④ 모든 현금거래는 공식적인 결재시스템을 통해 운영한다.
- ⑤ 현금 및 예금 잔액에 대하여는 주기적 또는 수시로 검증한다.
- ⑥ 금고 관리 등 물리적인 현금 관리에 유의한다.

⑦ 보유 자금 및 현금을 운용할 때는 적절한 수익성을 확보한다.

교회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영성을 바탕으로 합리성을 추구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교회 본연의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업회계기준과는 다른 교회회계기준이 필요한데, 국내 교단 중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측)가 유일하게 1999년에 교회회계기준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단위교회에서 자율적으로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실행이 교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사실, 교회는 다른 종교 시설들보다 투명성이 높은 편이다. 아직은 초보수준이긴 하나 업무가 분화되어 있고, 보고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대 사회와 교회 성도들은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각종 불순한 세력으로부터 교회와 목회자를 보호하려면, 높은 투명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투명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 앞에서 투명한 것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한국교회의 회계 현황과 개선방안

이천화 (기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얼마 전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실시한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에 의하면 기독교인을 포함한 일반인들의 신뢰도는 5점 척도 기준 3점 이하이다. 3점은 신뢰하지도 않고 불신하지도 않는 수준인데 이보다 낮은 2.6 수준이라 한다. 지난 6년 동안 실시된 4회 측정 결과 모두 낮은 수준으로 보고되는 것을 보면, 문제는 심각하다.

한국교회가 봉사와 구제를 많이 함에도 신뢰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언행이 일치하지 않아서, 교회내부의 비리와 부패가 많아서, 교회회계시스템이 불투명해서 라고 한다. 이제 한국교회가 복음 전파와 영성 유지뿐 아니라 사회에서의 신뢰 회복에도 큰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이다.



조성표 현재 경북대 경영학부 교수이며, 본 동역회 실행위원장이자 대구 성덕교회 장로이다. 전공은 재무회계 및 연구개발회계로 그리스도인의 재정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관련된 역서 및 저서로는 『돈걱정 없는 가정』(CUP), 『하나님이 가르쳐준 행복한 가정 생활』(이상구, 정동섭, 양은순 공저: CUP), 『하나님 돈을 어떻게 쓸까요?』(박정운 공역: CUP), 『아직도 계속되는 꿈』(6인 공저: CUP), 『완전한 성공 1, 2』(11인 공역: CUP), 『공학회계』(명경사), 『비영리단체/비정부기구의 전략경영과 자금개발』(예영커뮤니케이션), 『알수록 행복해지는 돈의 비밀』(CUP), 『FRS 중급회계』(경문사), 『한국사회의 발전과 기독교』(10인 공저: 예영커뮤니케이션) 등이 있다.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자료 “한국의 종교 현황”에 따르면, 천주교를 제외한 개신교 신도수는 8백 6십1만 6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8.3% 정도이다. 1명당 월 100,000원을 교회에 헌금한다고 가정하면 월 8천6백여 원, 연 10조3천억 원이 된다. 2011년 기준 조세수입 중 내국세가 159조 규모 임을 감안하면, 이는 약 6.5% 정도로 적지 않은 비중이다. 이 정도 규모의 재정이라면 회계적으로 투명하게 관리 및 보고되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

일반적인 회계의 기능은 소유와 관리가 분리됨에 따라 소유주가 관리자에게 맡겨진 재산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수탁관리자로부터 보고를 받음으로써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또한 소유주를 포함한 정보이용자에게 회계실체의 경제적 현상을 화폐액으로 보고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회계실체인 개별교회의 소유주 또는 정보이용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개별교회의 회계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받기 원하는 이해관계자는 어떤 개인과 조직이 있을까?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새(settled account with them)”,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이나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give an account of your management)”, 여호수아 14장에서 갈렙이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더라(I report according to my convictions)”는 말씀을 통해 회계의 기능과 필요성을 인정 하신 것 같다. 그럼 헌금을 한 교인들은 어떠한가? 일단 교인들은 자신들이 헌금한 재정은 자신들의 소유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관

리하거나 사용 내역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 나아가 일이 따지는 것을 죄악시하는 경향도 있다. 그리고 보고의 주체가 되는 교회의 당회장 또는 재정담당자는 재정 공개의 요구를 불신의 동기, 더 나아가 신성에 대한 도전으로 치부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재정공개를 요청하기 어렵고 아예 포기하는 경향도 있다.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교회회계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계기준이 일부 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일반화되거나 통일되지 않아서 계정과목이 각자의 편의에 따라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보여주는 예·결산 대비표 또는 수지계산서는 있으나, 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보여주는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는 작성되지 않는다. 이는 복식부기를 사용하지 않고 단식부기를 사용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재산관리의 시스템이 약하거나 없다고 볼 수 있다. 예산회계를 사용한다고 하나 운영 측면에서도 예산회계의 실효성을 검증하기는 어렵다.

둘째, 운영 측면에서 당회장 또는 재정담당자 등 소수에 의해서만 관리되어 효과적으로 견제하거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관계당국인 정부나 세무서에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서만 제출하고 있을 뿐 전체적인 재산상태나 운영내용을 보고하는 양식이나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싶다.
첫째, 주요 이해관계자인 교인들의 교회회계에 대한 관심이다. 헌금이 나의 재산이 아니라는 소유 개념을 넘어, 사용과 관리의 적합성 및 운영과 보고의 투명성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회계보고를 요구하는 것은 불신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지체로서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며,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려는 의지를 실천하는 것이다.

둘째, 운영 측면에 있어서도 소수가 재정을 관리하기 보다는 적절한 업무분담을 하여 승인자와 집행자를 분리, 최대한 현금거래를 줄이되 신용카드 사용 또는 은행거래를 통해 지출의 근거를 남기도록 한다. 아직도 많은 교회에서 현금으로 헌금을 하고 있어 보유한 현금을 지출하게 된다. 모든 현금수입은 은행에 전액 입금 시킨 후, 사용토록 한다.

셋째,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대비하여야 한다. 최근 모든 사립학교는 규모와 상관없이 공인회계사의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그 재무현황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대부분의 공익법인들도 재무현황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된다. 교회는 아직까지 재무현황 공개여부와 상관없이 기부금 공제 대상 단체로 인정받고 있지만 머지않아 재무현황을 공개해야 할 시기가 올 것이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새 \(settled account with them\)”,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이나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give an account of your management\)”, 여호수아 14장에서 갈렙이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더라 \(I report according to my convictions\)”는 말씀을 통해 회계의 기능과 필요성을 인정하신 것 같다.](#)



후를 위해 요양시설과 공원묘지를 준비한다면 기부금 공제를 요청할 만큼 공익성이 있는지 묻고 싶다. 적어도 50% 이상의 재정이 현금하지 않는 제3의 수혜자들을 위해 사용될 때 사회적 공익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개신교는 어느 단체보다도 적극적으로 사회 봉사활동과 구제활동을 하고 있다. 각종 복지금, 구제기금 조성에도 참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일반적인 평가는 부정적이다. 선행을 남이 모르게 하라는 불문율이 있지만 이제는 교회가 재정 관리에 있어서 폐쇄적이지 않다는 것을 사회에 알려야 한다.

이제 교회가 자발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사회가 강제적으로 요구하기 전에 교회 스스로 교회사역과 재정운영에 대하여 내부의 공유를 넘어 일반 사회에도 공개한다면 실추된 교회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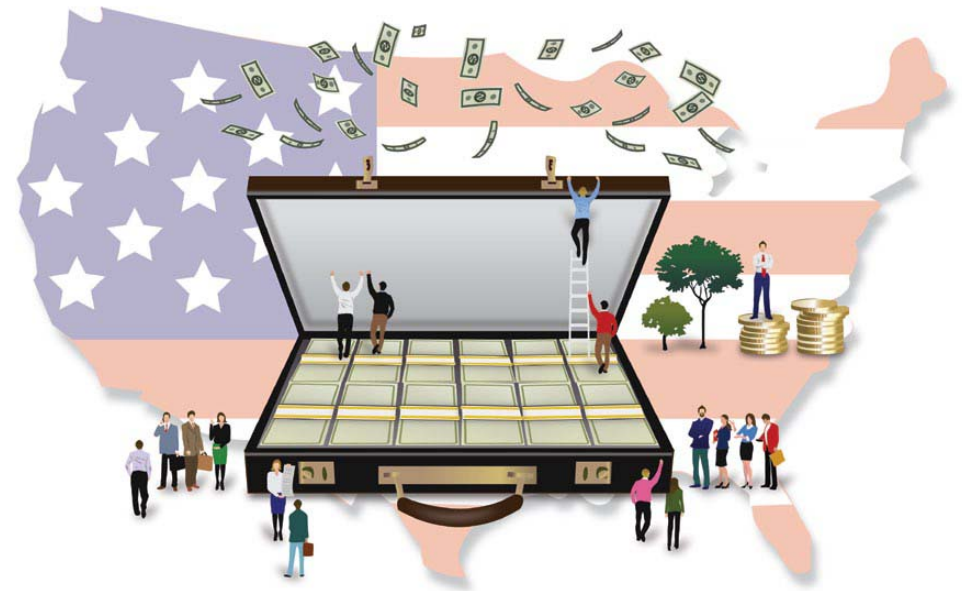
넷째, 재정운영 기준과 보고양식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하고 싶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사업과 구제의 차이는 무엇인가? 사업은 돈을 지불하는 사람에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구제는 댓가를 지불한 사람과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다르다. 이런 시각에서 한국 교회는 재정지출을 대부분 누구에게 제공하고 있는지, 몇 %의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몇 %의 구제를 하고 있는지 구분해 보고 싶다.

일반적인 교회재정 사용내역은 목회자 사례비, 직원 급여, 행정관리비, 임대료, 지급이자 또는 차입금 상환금 등으로 분류된다. 그 외에 행사비, 교육비, 선교비, 구제비 등이 있다.

만약 교회재정의 90%정도를 현금 하는 교인들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교회재정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사업자인가? 공익단체인가? 이러한 재정운영단체를 기부금 공제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을까? 댓가를 지불하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것은 친목단체 또는 수익단체라 할 수 있다. 교회가 현금하는 교인들을 위해 건물을 짓고, 예배를 위해 좋은 악기와 전문음악가를 세우고, 식사를 제공하고 그들의 자녀를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들의 노



이현화 가림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이며 미국, 한국 공인회계사이다. 경희대 경영대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경희대, 숭실사이버대학 겸임교수를 역임했고 현재 기독교경영연구원 부원장, 한국기독교실업인회, 신동아학원, 기아대책 및 이랜드 재단 감사이다.



미국의 비영리법인 회계제도 및 투명성 보장제도

◎ **박두준** (재)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

지난해 여름 미(美)국세청은 한 비영리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교회와 종교단체의 정치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하지 못했다'는 것이 소송 이유였다. 판사는 미(美)국세청의 교회 및 종교단체 관리에 대한 업무태만을 인정했다.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제도가 선진화되려면 일반대중, 비영리단체 관계자뿐 아니라 정부의 협력과 감독도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정부와 기부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제도개선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비영리법인 회계제도와 규정에는 흔히 '선진화된'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그러나 위 사건과 같이 미국사회도 한국과 같이 종교단체에 대한 면세혜택 논란에 있어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 그러나 고무적인 것은 이미 미국에서는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들의 투명성과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다.